

“늘 깨어있는 삶으로 사색의 창 흐리지 않게 할 것”

광주출신 윤소천 수필가 ‘가슴만 남은 솟대’ 한국수필 문학상 수상
현대인들에 꿈 잃지 말라는 기원…“수필의 매력은 내면과 진실한 만남”

붓 가는 대로 자신만의 단상을 글로 풀어내는 장르가 수필이다. 일반적으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일상에 대한 사유와 세상살이에 대한 소회를 기록할 수 있다는 데 묘미가 있다.

작가들이나 문학애호가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수필을 쓰는 것은 그런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자유로움도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 물론 오늘날에는 시적인 문장을 가미한 시문학적인 수필도 점차 각광을 받는 추세이기도 하다.

최근 광주출신 윤소천(사진) 수필가가 ‘제44회 한국수필문학상’을 수상해 화제다. 수상작은 ‘가슴만 남은 솟대’.

광주교와 국민대를 졸업한 윤 수필가는 ‘한국수필’로 천료돼 문단에 나왔다. 하지만 글에 대한 엄격성, 완결성을 추구한 나머지 작품을 많이 발표하지는 않았다.

그는 최근 가진 인터뷰에서 “문학이 영혼의 상처를 사랑의 향기로 바꾸어 주는 행위라면 이 사랑의 향기가 곧 수필이라고 생각한다”며 “잊고 있었던 글을 다시 쓰면서 내 안에 움트는 사랑의 새싹은 나와와 새로운 만남이었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인생의 안팎을 더 살펴며 삶의 의미를 되새기겠다”며 “늘 깨어 사색의 창을 흐리지 않게 하고 정서의 샘이 마르지 않는 글을 쓰고 싶다”고 덧붙였다.

윤 수필가는 지난 6월 광주 상무지구 라마다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제44회 한국수필 국내 심포지엄’ 현장에서 한국수필문학상을 수상했다.

장호병·최원현·권남의 심사위원들은 “‘가슴만

남은 솟대’는 변하는 시대 속에서 옛것을 소중히 남기고 싶은 마음에서, 우리 것을 지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다”며 “사막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꿈을 잃지 말라는 기원으로 다가온다”고 평했다.

또한 “윤소천의 수필들은 다분히 자연적이고 동화적이다”며 “읽으면 맑은 맛이 나는 싱그러운 문장들이 읽는 이의 마음까지 밝힌다”고 언급했다.

윤 수필가의 문학 입문은 예상했던 것보다 늦다. 젊은 시절부터 글을 썼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회갑이 되어서야 글쓰기에 조금 눈을 뜬 것 같다”고 했다. 흔히 자신과의 만남을 개안(開眼)이라 한다면, 그는 인생 후반에 들어서야 글의 묘미를 조금 알았던 것이다.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과 겸허의 말로 들린다. 표제작이자 작품집 제목이기도 한 ‘가슴만 남은 솟대’를 발간하면서 그는 “지나온 길 돌아보며 꿈결처럼 아득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온다”며 “서리만 희끗한 머리칼, 어느새 반생을 훌쩍 넘어 종심(從心)에서 서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흔히 우리나라 70세인 ‘중심’을 가리켜 인생의 연륜과 지혜가 정점에 다다른 시기라 한다. 윤 수필가가 70세에 그동안의 삶의 여정을 성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을 담은 작품집을 펴낸 데는 그러한 깊은 뜻이 내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가 생각하는 수필의 매력은 ‘내면과의 진실한 만남’이다. “노검과 깨달음 사이에 놓인 삶의 고백이다”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마치 수채화를 바라볼 때 부지불식간에 떠오르는 생각을 글로 옮기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주요 소재는 사유와 실존의 언저리에서 사물을 보며 느낀 생각과 깨달음이다. 글을 쓰다보면 막히거나 풀리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자연스럽게 삶의 근본으로 돌아가려 시도한다”고 한다.

“중등교사로 잠시 교편을 잡기도 했고 이후에는 기업 등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해봤는데 금융위기로 고생도 했어요. 그러다 광주 근교의 시골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어쩌면 전화위복 같은데 자유롭게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사유의 갈등’을 많이 해소했던 것 같아요.”

그는 앞으로도 “오늘 글보다 내일 더 나은 글을 쓴다”는 생각으로 작품을 쓸 예정이다. “가슴만 남은 솟대”에 실린 ‘감사하는 마음으로’처럼 지나온 삶에 대한 감사와 겸허,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대한 다짐을 안고 ‘정행검덕’(精行儉德)의 자세를 견지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승유 지휘자, 제주교향악단 상임 지휘자 취임

광주일보 호남예술제 출신

광주 출신 지휘자 박승유(사진)가 제주교향악단의 신임 상임지휘자로 취임했다.

제주특별자치도립교향악단(제주교향악단)은 지난 10일부로 박승유 지휘자를 신임 상임지휘자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박 지휘자는 유럽 정통 교육을 이수한 지휘자로, 깊이 있는 해석과 탁월한 전달력으로 주목받아 왔다.

호남예술제 출신이기도 한 그는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와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대에서 지휘와 관현악을 전공했다. 이후 2015년 런던 국제 지휘 콩쿠르 우승, 2018년 부카레스트 BMI 국제 지휘 콩쿠르 청중상 수상 등 국제 무대에서 입지를 다져왔다. 국내에서는 한국지휘자협회 최우수 지휘자, 한국음악협회 신인상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을 갖고 있다.

최근까지 양주시립교향악단을 이끌었던 박 지휘자는 국내 초연작 발굴과 창의적인 기획 공연,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 등으로 ‘오케스트라의 방향성’을 설계하는 기획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박 지휘자는 “제주에는 문화적 자산과 예술적 가능성이 공존하는 특별한 곳”이라며 “관객에게는 다정한 음악의 안내자, 단원에게는 신뢰받는 리더가 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박 지휘자는 제주교향악단과 함께 새로운 시즌을 준비 중이며, 하반기에는 국내외 관객

에게 제주만의 색깔을 전할 정기연주회와 다채로운 기획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글빛마루정원’ 시민에 무료 개방

광주문화재단, 독서문화 장려…홈페이지서 대관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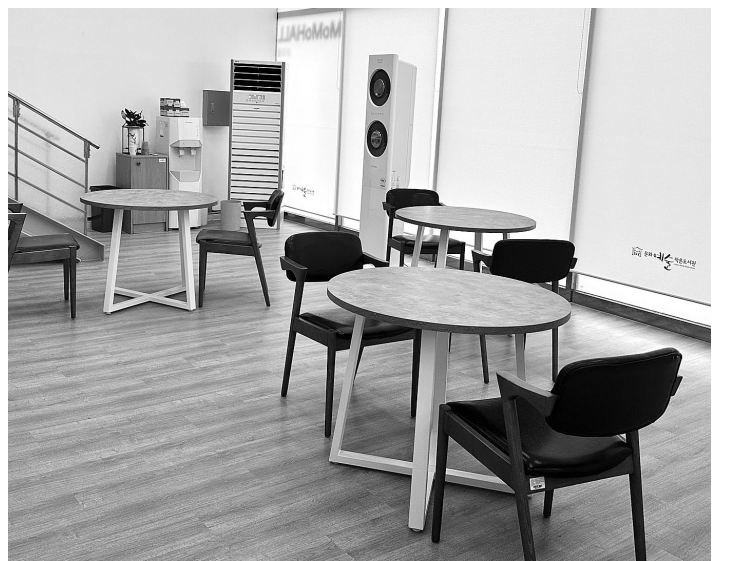
빛고을은 한강이라는 노벨문학상 작가를 배출한 지역이다. 한강 작가가 광주 출신이라는 사실은 지역민들에게 큰 자부심이다. 자연스레 독서문화 확산, 독서문화 활성화로 이어지는 게 노벨상 작가를 배출한 도시가 갖추어야 할 경쟁력이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희웅)은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글빛마루정원’을 무료로 개방한다.

빛고을아트스페이스 2층에 자리한 ‘글빛마루정원’은 ‘인문도시 광주, 책 읽는 도시 광주’를 지향하는 취지로 지난 6월 말 조성됐다. 글, 빛고을, 마루정원이 결합된 말로 독서와 인문학이 펼쳐지는 공간이라는 뜻을 함의한다.

이곳은 6인실, 14인실 등 2개의 세미나실을 갖추고 있으며 세미나를 비롯해 독서모임, 인문학 강좌 등 다채로운 문화 활동이 가능하다.

재단은 향후 운영과 관련 만족도 조사, 의견 수렴을 거쳐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글빛마루정원 공간.

〈광주문화재단 제공〉

노희웅 대표는 “공간을 개방해 시민들이 인문, 독서, 문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교류 중심, 독서 예술 중심 등 시민들의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문화정책을 전개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청 단체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되며 공익성, 공간 적합성이 대관 기준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중앙학생 시조백일장 진도고 이유나 최우수

지산중 김문수·의신초 양향희 우수상

국내 최고 학생시조 백일장인 중앙일보 주최 제11회 중앙학생 시조백일장에서 진도고 1학년 이유나 양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지산중 1학년 김민수 군, 의신초 6학년 양향희 양은 각각 우수상을 차지했다.

최근 서울 종로구민회관 창신아트홀에서 제11회 중앙학생 시조백일장 본심이 열렸다. 이날 본심에는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311명 가운데 219명의 초·중·고 학생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시제는 초등부 ‘짝꿍’과 ‘내 동생’, 중등부 ‘사춘기’와 ‘폭염’, 고등부 ‘쓰레기’, ‘구름의 발’이 주어졌다.

이지엽·김선호·김종민·조영자·김강호 시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위원장 이지엽)는 “백일장의 경우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각 부별로 두 사람의



제11회 중앙학생 시조백일장 본심 대회가 최근 서울 종로구민회관에서 열렸다.

〈이지엽 시인 제공〉

심사위원이 전편을 읽고 A, B, C로 평가한 다음 A등급만의 작품을 대상으로 한 작품씩 세밀하게 살폈다”며 “초·중등부 작품의 기량이 많이 향상되었고 고등부의 경우는 의외로 ‘구름의 발’ 시제를 통해 시적 상상력을 활발하게 펼친 작품들이 주목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지역 출신 이유나 양, 김민수 군, 양향희 양은 모두 진도 인문 아카데미 ‘나도 작가’ 프로그램에 참여해 실력을 연마한 학생들로 눈길을 끌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디케이 주식회사

공 기 의 새 로 운 정 의 공 간 을 빛 내 는 선 택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
우리 집 공기의 깨끗함입니다.
늘 깨끗한 집, 늘 건강한 숨.

모 든 순 간 을 더 건 강 하 게
디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